

제일모직, 소외아동 환경교육 캠페인

제일모직은 9월8일 창립 57주년을 맞이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소외 아동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공익 캠페인을 펼쳤다.



제일모직은 과천시정부청사 운동장에서 황백 사장과 윤종수 환경부 차관, 아름다운 가게 홍명희 공동대표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일모직과 과천시청사 직원들이 기증한 의류 등을 판매하는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과천 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의 사업장이 있는 서울, 여수, 구미, 오창 등 전국 5개 행사장에서 동시에 열려 의류 8000여점과 전자제품, 도서, 유아용품 등 1만3000여점의 물품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됐다.

판매수익은 환경보전협회의 심의를 거쳐 소외 아동의 환경교육 공모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환경교육 공모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벼룩시장과 어린이 환경교육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화학저널 2011/09/08>